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호 [투게 제23324호] 주체100(2011)년 1월 7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칙의 신념을 안고 조선중앙사건전선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시었다.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동물학연구소 연구사 정선녀는 금수산지구에 언제나 푸른 숲 설레이도록 하기 위한 좋은 일을 찾아 하였으며 향반루상설 로동자 강승도 많은 지원물자를 정성껏 마련하여 이곳에 보내 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로 살며 일할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경흥지도국 계산원 홍정순은 말처럼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태양의 성지를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바치고있다.

수령영생위업의 력사를 전하는 성지를 빛내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이고 라선시 청계동 리복순도 이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편지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명령을 깊이 전하는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 단둥동향영명수산식품유한공사에서 대형꽃바구니를,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성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 단둥동향영명수산식품유한공사에서 대형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성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성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성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인민통신은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인민통신은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사설은 또한 선군혁명령도를 높이려고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고 한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인민통신은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사설은 또한 선군혁명령도를 높이려고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고 한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인민통신은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새해를 맞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상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를 1일과 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오종훈 7세대 장군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 105땅크사단의 군사훈편을 보신 소식을 1월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 105땅크사단의 군사훈편을 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부대원들은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끝까지 벌임으로써 조국의 가장변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모든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데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훈편도 전투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편을 한민 하여도 실천과 같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기풍을 발휘할

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높은 군사적지지와 전투능력을 소유한 싸움꾼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사단원하 중대를 시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전투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이 나라의 중앙TV방송과 인터넷트홈페이지들 신화망, 인민망, 환구망, 경제망, 방송총망, 홍콩신보 《문화보》, 홍콩보통위성TV방송, 로씨야의 소리방송과 이따르-따르통신, 일본의 《도쿄신보》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기술기밀기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최신식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중국 홍콩 보통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이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첫 음악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당과 조국,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며 선군시대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라오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기술기밀기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최신식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중국 홍콩 보통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이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첫 음악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당과 조국,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며 선군시대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라오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기술기밀기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최신식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중국 홍콩 보통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이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첫 음악회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당과 조국,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며 선군시대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라오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조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대한 반향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북남 사이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연합성명을 통해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제의를 하였다. 이것은 위협적인 현세로 보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으로 보나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상관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

한 숭고한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비롯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대화와 협상, 접촉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이번 연합회의는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손잡고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불문의 원죄에서 대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오늘 북과 남에 있어서 대화와 협상은 다른 출로가 없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정의로운 제안이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엄중한 현실에서 북남관계가 어느 길로 가고 민족의 전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것은 연합회의제안에 대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

목소리를 합치고 애국심과 열정, 지혜와 힘을 총발동할 때는 왔다. 우리는 북과 남이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설 때 대화와 협상을 하십시오.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리저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북남대화를 거부하거나 기간단계적합의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배양을 차단하고 제동을 거는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널리 장려되어야 한다. 북남사이의 긴장완화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대한 사업은 우리 민족의 의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것을 이끌어갈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 민족이

민족의 통일념원이 반영된 중대제안

이번에 발표된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현시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결실한 해결을 기대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담겨져있다. 이번 연합성명에서 천명된 제안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중대한 제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성명은 동포애와 평화애호적립정이 뜨겁게 흐르고 통일지향적인것으로 하여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성명은 올해의 정초에 발표된것으로 하여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

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어나갈것을 바라는 온 민족에게 커다란 고무적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민족사적의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건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당국이 집권 3년간 의외의 함께 북남대화를 추구한것으로 하여 세 세계에 들어서면서 북남관계에서 경이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6.15 통일시대의 전진에 장어가 조성되고 온 민족은 대결과 전경위험이 극도로 조성되는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던 안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에서 천명된 중대한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6.15의 흐름은 거세차게 이어질것이다. 나는 조선사회민주당의 이름으로 이 연합성명을 다시한번 진폭적으로 지지한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가는가 하는것이

대화과 협력만이 민족의 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갈것을 주장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는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가 온 민족,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있게 부르고있는 시기에 발표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지금 우리 직황총련위원회의 일군들의 가슴가슴에 애국의지와 열정으로 새차게

풀어받치게 하고있다. 나는 북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연합성명의 제의가 북남관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연합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한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업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연합성명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 바라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

지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연합성명이 천명된바와 같이 대화와 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출로이다. 최악에 이른 북남관계의 위기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자는 민간이든, 여당이든, 양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가림없이 대화와 협상에 용감 나서야 한다. 나는 조성된 사태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출로를 개척해나가는 이번 연합성명의 중대제이에 호응하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과 남이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방도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될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려는 책임적인 입장에 서는것이다. 우리 직황총련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시기 그러했듯이 앞으로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남조선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의 면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아울러 나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2011년에 기여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위업을 한 사람같이 펼쳐나설것을 남조선로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직협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 상 주

통일의 래일을 안아올 의지의 발현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일군들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나갈 애국의 결단에서 출발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은 서로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지속되는 경우 그 후과는 예측할수 없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화해와 신뢰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당국대화를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해결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다.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해나가는 평화적방법, 정당, 단체 연합성명의 중대제안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제이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평화문제에서 남조선당국은 회피할수 없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이제 동쪽을 배척하고 외세를 우선시하는 외세의존정책, 동족결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온 민족을 6.15통일시대 거스를 요구고있다. 이번 연합성명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 연합성명의 제안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일군들은 연합성명의 정신에 맞게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올해 조국통일투쟁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안아올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전 중 수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협동법을 쏠게 하는 화선식정치사업 활발

새해 공동사업과 개혁제철협업기업소 농업인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호응하여 떨쳐나선 각지 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판결하여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이룩할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정초부터 거름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 3일 하루 동안에만도 수백만 t의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정치사업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거름생산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옮기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보다 참신하고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선전선동

각 지 당 조직들과 당 일 군 들

부에서는 당면한 거름생산전투에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자료를 시, 군당위원회들과 농촌당조직들에 내려보내어 전투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대세게 벌려나가게 하였다.

시, 군, 협동농장들을 맡고 내려간 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방 송신전차들에서 노래 《승리의 길》을 련속 내보내도록 하여 새해 첫 전투분위기를 현충 고조시켰다. 그리고 일군들이 직접 방 송 마이크를 잡고 격조적인 선동연설로 대중을 거름생산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고무된 배천군, 연안군, 청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첫 전투에서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이날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 첫 전투의 하루동안만 해도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수만 t의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 혁신이 이루어졌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

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의 과녁을 정하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거름생산전투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참신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첫 전투가 벌어지던 날 수천의 유기질비료를 실고 송환과수농장에 내려간 도급기관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협정에는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신로주시에서는 새해 농사차비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수백점의 구호와 선전화, 포스터들이 게시되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곳곳에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수만점의 구호와 선전화, 포스터들이 게시되었다.

이것은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정진력을 분출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이에 고무된 정주시, 영주군, 운전군, 박천군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새해 첫 거름생산전투에서 최고실적을 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전투적분위기에 맞게 농촌지원에서 혁명을 일

우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60여 t의 도시거름을 10여대의 자동차에 싣고 거름생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포전에 나간 도급기관 일군들과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공동사업과업관철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렸다.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평 안 남 도 에 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수만 t의 질 좋은 거름과 영농자재들을 싣고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새해부터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일군들이 이선작적의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 달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립인민위원회, 도수산관리국, 도인민위원회 배송수송대를 비롯

평안남도에서 농촌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3일 하루동안만에도 수천 t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실어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올해에 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농업생산을 늘일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만반히 하였다.

농촌지원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제위원회,

평안남도에서 농촌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3일 하루동안만에도 수천 t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실어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올해에 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농업생산을 늘일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만반히 하였다.

농촌지원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제위원회,

농촌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일군들부터 거름운반전투를 힘있게 조직행하는 한편 농촌지원전투의 앞장서서 가족들과 함께 질 좋은 거름과 트랙트르부속품, 용접봉, 삼 등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백두산 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순천시, 북강군, 신양군에서는 화물자동차들과 트랙트르를 동원하여 많은 거름과 영농자재들을 농촌에 실어내는 사업을 잘하고있다.

특약기자 리 혁 철

최고수확년도수준을 기어이 돌파하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데가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할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새해 첫 전투를 앞둔 미곡리 사람들의 심장은 세차게 끓어올랐다. 최근년간 농장을 여러차례 찾아다니고 미곡협동농장은 당의 농사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전국의 앞장서 나가며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농장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압록강으로 보답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원대한 포부를 안고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향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농촌지원의 불길은 도안의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료전지체들과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9만여 t의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협동농장조직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원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하여 거름더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축산을 잘하여 많은 거름을

배천군 석산협동농장에서

추산을 잘하여 많은 거름을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새해 첫 전투에 들어선 교육위원회 청사에는 어느때없이 정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고요하고 정숙한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주체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비약의 설계도가 마련되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하는 교육위원회의 전투적업무는 공동위원회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주었다.

세계적인 인재대국! 올해에 주체교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을 바라는 경여하는 장군님의 높은신념과 크나큰 기대가 담겨진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겨 모든 일군들이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신심되이 새해전투에 떨쳐나선다.

해마다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첫 전투에 떨쳐나선 교육위원회의 일군들이다. 하지만 올해에 이 일군들의 사상적 각오와 열의는 류달리 높다.

올해전투목표는 명백하다. 교육혁명의 불길은 더욱 세차

튼튼한 배심, 빈틈없는 작전

교육 위원회 일군들

제거될려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정보화, 교육환경개선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의 체도를 당당히 갖추는것이다. 그러자면 할 일이 많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첨단학과목들을 개척하여야 한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제기되는 과업 또한 간단치 않다.

《무엇고도 책임적인 과업들입니다.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경여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만능의 보검과 담겨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교육청 부상 박스덕담부의 심정만이었는가. 교육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선군명장이 안겨준 만능의 보검을 힘있게 틀어쥐고 이면 목표도 단숨에 점령할 자비만만한 배심에 넘쳐 있다.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정확히 세우는것은 전도승리의 확고한 담보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에 이은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교육부문에 주신 경여하는 장군님의 말씀과 새해공동사설학습, 당당한 교육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로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 것이다.

당조직의 지도와 일군들의

으로 개선할 열의에 넘쳐있는 일군들, 재능있는 인재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소질을 꽃피워주기 위한 교육방법탐구를 위해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는 유치원교육을 담당할 일군들... 모범교육청총화정회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교육사업도 도, 시, 군 (구역) 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보다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 등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의 질제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들도 혁신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설계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교육기자재들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있는 교육기자재공공을 맡은 일군들의 열의가 뜨겁다. 학예가들이 이 땅에서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일떠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높은 수준에서 세워지고 있다.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는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재를 위한 수재교육을 제1종학급들을 담당할 일군들과 첨단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탐구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

교정에 넘치는 창조의 열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의 질적상태가 규정됩니다.》

신주의학대학 교정에 또 하루 창조와 혁신의 새날이 밝아온다. 커다란 포부와 신심에 넘쳐있는 교수진과 연구사들과 교원, 연구사들, 모듬은 각자어떠도 발걸음도, 가슴속에도 타오르는 맹세도 하나이다.

실질 박사학위를 받은 실장 리광훈동무가 립상실실에서 좋은 결실을 보고있다는 소식에 이어 20대의 신임교원인 방원일동무가 교육실현에 의의있는 다매체전집물을 완성했다는 기쁜 소식이 교정에 전해졌다. 홈페이지구축과 정보기술을 리용한 원격의료봉사시설과 호상관계보장 등 교원, 연구사들의 교수조건, 연구조건개선에 이룩된 성과들이 련이어 전해진데 이어 축산기지에서 낱은 소식 또한 사람들의 가슴을 초토하게 해주었다.

아직은 어렵고 힘든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같다.

《오늘의 최후투격전에서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겠습니다.》

얼마전 대학에서는 일군들과 교원들이 모인 공동회의가 진행되었다. 뜻깊은 지난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긍지도 높고 올해의 총진군에서 보다 큰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되었다.

불타는 열의속에 전투결의

신 의 주 의 학 대 학 교 원 , 연구 사 들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심장의 피를 끓게 하고 열매, 백배의 열정과 지혜가 솟아오르고 있다. 기세는 더욱 충천해졌다.

교육의 질제고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전문기관 일군들과 연구사들과의 련계망에 양질의 제도와 향종양효과를 정확히 밝히는 데 의의있는 연구성과들이 잇달아 박사학위를 받은 실장 리광훈동무가 립상실실에서 좋은 결실을 보고있다는 소식에 이어 20대의 신임교원인 방원일동무가 교육실현에 의의있는 다매체전집물을 완성했다는 기쁜 소식이 교정에 전해졌다. 홈페이지구축과 정보기술을 리용한 원격의료봉사시설과 호상관계보장 등 교원, 연구사들의 교수조건, 연구조건개선에 이룩된 성과들이 련이어 전해진데 이어 축산기지에서 낱은 소식 또한 사람들의 가슴을 초토하게 해주었다.

아직은 어렵고 힘든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같다.

《오늘의 최후투격전에서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겠습니다.》

얼마전 대학에서는 일군들과 교원들이 모인 공동회의가 진행되었다. 뜻깊은 지난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긍지도 높고 올해의 총진군에서 보다 큰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되었다.

불타는 열의속에 전투결의

목표가 높고 기세 또한 충천해졌다.

첨단학과를 내놓을것을 결의해나선 학부장들도 있었고 한건 이상의 새 교수방법, 실험기구를 창안할 결의를 가다듬는 교원들도 있었다. 말파스와 먼지를 빠른 시간에 제거할수 있는 분사식분무기를 창안하여 회천발전전집물을 담담기때기어함으로써 경여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학부장 독고순일, 교원 김광진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의 열의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목표가 높고 기세 또한 충천해졌다.

학장 리인철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교직원, 학생들을 투철한 수령질서유정,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선진력의 강자들로서는 단 한사람의 힘을 넣고 있다.

과장 김정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체인 조직사업에 교수경연과 교육경험토론회, 보여주기교수, 과학발표회 등 자질향상, 과학연구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목표가 높고 할 일이 방대할수록 더욱 기세충천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교원, 연구사들이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전례없는 교육사업성과를 달성할 확고한 결심과 드높은 창조적열정속에 교정의 하루하루가 흐르고 있다.

본사기자 리 은 내

평양공업전문학교에서

평양공업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장 김장현, 부교장 최명철동무들은 교수보장을 위한 학교적인 계획을 과학적인 현실성있게 세우고 새해 첫 전투부터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치고 있다.

과학지도교원 기동철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강좌별, 교원별로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질향상 목표물을 세우고 모든 교원들이 완강하게 실천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강좌장들인 공성도, 변옥순, 김영희동무들은 년초부터 인민

실물교육에 힘을 넣어

분 평 공 업 대 학 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공강대학, 어강대학, 농강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구울성과 생활화를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분평공업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결의에 힘찬 보폭을 내리고 있다.

대학에서는 공강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졸업하여 현장에서 하나 한몫 담당할수 있도록 현상에서 쌓고있는 지식과 배려주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실물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하나를 배려해주고 싶지 않으면 수 있는 산 지식이 되고 대중적기술훈련운동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부학장

교원들의

북청원예전문학교에서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선차적인 힘을 쓰고 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컴퓨터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직관교육수단들을 교수에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교육사업의 방법론있게

교원들은 강의내용을 부단히 개선하고 과제를 하나 주어도 실천과 결부시켜 풀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오늘도 분평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게 보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본사기자 김 경 철

실력을 높인데 주선을

하여 다매체전집물작성에 달라붙게 하고 있다.

올해공동사설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는 이곳 교원들의 불타는 열의속에 교육실현에 의의있는 새로운 교육방법들과 다매체전집물들이 수없이 탐구되고 있다.

본사기자 정선남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은 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관람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순님들이 6일 만수대에올극장에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여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도따라 강성

신년경축음악회 관람

을 일으켜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은 의지를 높은 예술적 기교로 잘 보여주었다.

신년경축음악회를 가하며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혁명적기상이 반영된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꽃피우니를 증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러 진행된 모임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의 힘

한 로 동 자 의 안 해 가 보 내 온 편 지 서

안해마져 소생을 단념하고 눈물속에 잠겨있을 때 병원원장의 방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선군시대에 우리들이 창조하는 비록한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면 그들, 병원일군들부터 먼저 피부를 매어내고 그 자리에 곧장 수술함을 꿰고 부부이식을술을 지휘하면서 뜨거운 정성과 승화된 인간애로 환자를 소생로 떠밀고나간 일없을수 없는 나날입니다.

용심깊은 아버지같기도 하고 다정한 어머니같기도 한 이곳의 로동자들의 감동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고영옥녀성은 이렇게 되뇌이곤 하였다.

하루 또 하루... 그들이 긴장하게 떨리는 소생치료전투는 눈물없는 불수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의 힘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의 힘은 그대로 불사되어 되어 우리는 입원한지 며칠만에 디더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오늘은 혁명대에 돌아왔다.

편지는 여기에서 끝났다.

한 평범한 녀성의 고마움은 로동자의 슬픔, 크나큰 격정이 맥박치는 장문의 편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모두가 언약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귀중한 과고마움을 더더욱 절감하게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어머니조국이 준 새 생명을, 새 삶을 부강 조국건설을 위한 장엄투쟁에 아낌없이 바쳐가는 한 로동자의 열정넘친 모습이 보인다.

진 철

새해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주제 100 (2011)년 새해에 즈음한 재중동포들의 행사가 1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구바혁명승리 52돛에 즈음하여 주조 구바공화국대사관녀성들이 6일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평양산원이 녀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꾸러짐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치료실, 입원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구바공화국 특명전대사의 부인 베로니카 가르파야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구바대사관 녀성들 평양산원 참관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세운 평양산원에 존선녀성들이 이리만큼 무상으로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이곳에 많은 최선의료설비

친혈육의 심정으로

해주시강 하천 사업소 로동자 박세철동무의 가정

엔제인가 해주시 수양산의 자연마위에 불철의 글밭을 새기는 공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그때 박세철동무도 여기에 참가하고있었는데 어느날 안해인 김연숙동무가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공사장에 찾아왔다.

그날 공사장에는 여러 기관, 단체들 지원물자를 가지고 찾아와서 예술품공예품을 펼쳐놓았는데 거기에서 격동적으로 시를 읊는 한 특유영애군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열정적인

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집에서 성의껏 준비한 영양가 높은 음식이며 내의류 등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온 그의 집을 왔을 때마다 박세철동무내 부부는 지원물자를 데리고가곤 하였다. 경여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는것을 가정의 기쁨이 되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하기에 이듬해부터는 뜻깊은 날이면 부모형제들보다 먼저 특유영애군의 집을 찾곤 하였다. 또한 특유영애군을 친혈육처럼 도와주면서 618건설동격대

대학생들 사회정치활동 활발히 전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들고 수도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군명칭 평양음악대학 등의 학생청년들은 정초부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나가 전력생산자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대학청년동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은 로동자들에게 올해 공동

대학생들 사회정치활동 활발히 전개

대학의 학생들도 새해영원전투를 들끓는 사투구역 장천, 봉성구역 화성남세전전문농농성, 평양농장 등에서 농장원들의 거름생산을 힘껏 지원하였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 고무된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할 혁명적열의에 넘쳐 성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대착오적인 망상,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조선전위회》 공동사설은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수 없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현 국제정치발전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올바른 평가이다. 새해공동사설에 명시된 이 사상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다그치기 위한 세계반제국주의투쟁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자주적인 저항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입어 힘있게 책동하고있으나 어떠한 힘도 자주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막을수 없다.》

지난해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험악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강권과 힘의 정책 강도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팽전의 위험이 증대되고 세계평화와 안전,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위협, 침해당하였다. 이것은 전민적국제정치발전예에 부정적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발전방향을 돌려세우지 못하였다.

새해공동사설에서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수 없다고 경고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국제법과 국제관계법칙에 위반되는 반자주적이고 반력사적인 행위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국제관계에서 끊임된 자주, 평등의 원칙에

실패 배치된다. 제국주의 민족은 다같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이다. 국제사회에는 큰 나라와 있고 작은 나라와 있으며 발전된 나라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와 있다. 그러나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다.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이라고 하여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작고 덜 발전된 나라들에 대해라제패라 지시하거나 혼신하여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할 특권을 가질수 없다. 특정한 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 예속하며 위협공갈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전횡을 일삼으며 인류의 운명과 국제문제들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오늘 국제사회의 지향과 힘의 정책은 더는 통할수 없다. 지난해에 벌어진 사태가 그것을 뚜렷히 립증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또한 평화와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계 국제정치흐름에 어긋난다. 세계인민들이 자주, 평화를 지향해나가는것은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이 시대적추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제국주의세력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의 전진운동을 억누르고 지배주의의 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새해공동사설에 천명되어있는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사상은 력사발전의 합법적성과 현 국제정치흐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의 진리이다.

지난해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력사적인 해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세계적판도에서 반미기운이 전례

없이 높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의 거세한 반미항쟁에 의하여 미제 침략군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반테로》전략은 과산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반테로전》을 반대해나섰다. 미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로부터 규탄배격을 받으며 국제적인 고립에 빠졌다.

제국주의자들의 자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 확대되었다. 수리아, 이란 등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반미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투쟁을 굳건히 견지해나갔다. 라틴아메리카는 반미투쟁선으로 더욱 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적인 혁명활동으로 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지난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적적으로 벌리신 대외활동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추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해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연습을 편이러 벌려주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미대결은 심각한 정치사상적대결, 군사적대결이다. 지난해 조미대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현시대는 자주리념이 옹호되는 시대이다. 오늘 자주의 흐름은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항거에 부딪히며 막을수 못하고있다.

자주는 정의이며 진리이다. 자주는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되는 공격대상은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의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 침략적, 약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주의를 투쟁대상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독약과 같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면 그들에게 먹히우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허용하면 그들은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게 된다. 제국주의와는 오직 투쟁만이 있을뿐이며 승리의 열쇠도 거기에 있다.

현시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중요하게 된다. 자수에에 의해서 피해 싸우되는 시대이다.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 필승의 보검은 선군이다.

자주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단결에 있다. 자수에에 기초한 단결은 불평등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자주리념은 단결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올해에도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위,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김종손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

외국의 벗들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적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국제김일성기념 리사장 조니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단결로 떨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도자의 두리에 입실단결되어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빛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아름다지기위해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까리우지 옥담은 이렇게 말하였다.

방문기간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령도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분들이시라는것을 깊이 느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조선인민을 자주적인인민으로 키워 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김정일장군님의 의하여 빛나게 세출완성되고있다.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날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는 제 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청년사업일꾼들속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세계김주청년련맹 위원장 디아고 알렉산드르 페라스 비에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에 의하여 조선은 돌로 갈라졌다.

조선인민이 불멸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동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선정을 일삼고있다. 이를 절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방문기간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령도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분들이시라는것을 깊이 느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시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조선인민을 자주적인인민으로 키워 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김정일장군님의 의하여 빛나게 세출완성되고있다.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날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는 제 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청년사업일꾼들속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세계김주청년련맹 위원장 디아고 알렉산드르 페라스 비에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에 의하여 조선은 돌로 갈라졌다. 조선인민이 불멸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동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그릇된 선정을 일삼고있다. 이를 절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은 김정일장군님의 의하여 빛나게 세출완성되고있다. 그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날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교육발전노력

중국 하남성에서 지난 20년동안 800개의 《희망소학교》를 건설하였다. 학교들은는 체육실과 도서관도 꾸려져있다. 이에 따라 빈곤지역의 많은 학생어린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토물수송량 증대

이란에서 지난해 3월에 시작된

향토물수송량 증대

한편 이란년도의 첫 8개월동안에 항을 통한 물수송량이 지난해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대되었다. 3월 이 나라 신문 《이란 뉴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석탄산출 목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에 석탄 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해 23%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3월 이 나라 신문 《자카르타 포스트》가 정부수석들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후파로

행렬이 계속 확산되고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미련방에금보통회사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010년에 전국적으로 157개의 은행이 파산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 17개 더 많은 것으로서 1992년에 비해 최고기록으로 된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또 발생하여 사람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날 일리노이스주의 시카고에서 또 총계발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총에 맞아 1명이 살해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의 기업체들속에서 경제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2월 교도통신이 100여개의 주요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의하면 조사에 참가한 76%의 기업체들이 나라의 경제가 의원 침체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항공회사가 지난해 12월 28일 경영행태의 악화를 구실로 일차리추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곧 기업체에서 약 17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우르투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밀수행위들이 드러나 203. 2kg의 마리취가 몰수되고 7명의 마약밀행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완주에서 12kg 23일 완주에서 5kg의 마리취가

한편 일본항공회사가 지난해 12월 28일 경영행태의 악화를 구실로 일차리추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곧 기업체에서 약 17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우르투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밀수행위들이 드러나 203. 2kg의 마리취가 몰수되고 7명의 마약밀행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완주에서 12kg 23일 완주에서 5kg의 마리취가

미당 정예대 부항의 학생들

미국 시카고시의 남부지역에 있는 한 건물에서 지난해 12월 22일 화재가 발생하여 16명의 사상자가 났다. 같은 날 뉴저지주의 북부지역에서 살림집가소 폭발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프랑스의 북부지역에서 열차가 철길 건설길에 들어선 승용차를 들이치고 3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국무원 판공청은 식량절약 및 람비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문 및 단위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정돈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섹시적이고 저속한 편집물들을 퍼뜨린 약 2500개의 웹페이지가 법에 따라 폐쇄되었다. 나라에서는 또한 에네르기와 식량소비기 남로 늘어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해경말도를 절약과 증산에 초점을 둔다. 특별히 주목이 틀러졌다. 나라에서는 인터넷판권과 리용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민족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중국어무원 판공청은 식량절약 및 람비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문 및 단위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정돈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섹시적이고 저속한 편집물들을 퍼뜨린 약 2500개의 웹페이지가 법에 따라 폐쇄되었다. 나라에서는 또한 에네르기와 식량소비기 남로 늘어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해경말도를 절약과 증산에 초점을 둔다. 특별히 주목이 틀러졌다. 나라에서는 인터넷판권과 리용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민족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중국국무원 판공청은 식량절약 및 람비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문 및 단위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정돈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섹시적이고 저속한 편집물들을 퍼뜨린 약 2500개의 웹페이지가 법에 따라 폐쇄되었다. 나라에서는 또한 에네르기와 식량소비기 남로 늘어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해경말도를 절약과 증산에 초점을 둔다. 특별히 주목이 틀러졌다. 나라에서는 인터넷판권과 리용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민족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중국국무원 판공청은 식량절약 및 람비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통지문을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문 및 단위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정돈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섹시적이고 저속한 편집물들을 퍼뜨린 약 2500개의 웹페이지가 법에 따라 폐쇄되었다. 나라에서는 또한 에네르기와 식량소비기 남로 늘어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해경말도를 절약과 증산에 초점을 둔다. 특별히 주목이 틀러졌다. 나라에서는 인터넷판권과 리용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민족 분별을 선동하거나 사표를 선전하며 음탕하고 폭력적인 정보와 류포시킴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중국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사상교양사업

많은 사람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제로 무장하도록

한일전승령자 65을 계기로 전국각지에서 전말들과 파티회, 연구토론회 등을 마련하여 세 세대들이 항일영웅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희생정신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현시대 혁명군인전승자들을 수련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이 적극 벌어져 군인들이 부대건설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유지하고 선진투쟁을 높이며 인민의 생명체산을 보호하는데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갔도록 하였다.

나라에서는 박물관, 기념관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와 문화부 등은 공동주최로 《학발문》 기념관무로개방사업을 더 잘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지, 각 부문에서 이 사업을 껴고들여 군중에게 보다 풍요롭고 봉사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9.18》역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유물들과 도서를 통해 민족의 용감함을 보여준다. 문화부, 국가보훈처, 방송국, 문화부, 국가보훈처, 방송국 등 단위들이서는 학습을 현실과 결합하여 조직함으로써

한일전승령자 65을 계기로 전국각지에서 전말들과 파티회, 연구토론회 등을 마련하여 세 세대들이 항일영웅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희생정신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현시대 혁명군인전승자들을 수련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이 적극 벌어져 군인들이 부대건설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유지하고 선진투쟁을 높이며 인민의 생명체산을 보호하는데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갔도록 하였다.

나라에서는 박물관, 기념관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와 문화부 등은 공동주최로 《학발문》 기념관무로개방사업을 더 잘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지, 각 부문에서 이 사업을 껴고들여 군중에게 보다 풍요롭고 봉사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9.18》역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유물들과 도서를 통해 민족의 용감함을 보여준다. 문화부, 국가보훈처, 방송국, 문화부, 국가보훈처, 방송국 등 단위들이서는 학습을 현실과 결합하여 조직함으로써

본사기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지할데 대해 강조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단독립 55주년을 즈음하여 연 연설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수단정부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견지하는 독자성의 원칙을 대외관계의 확고한 기초로 틀어쥐고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수단은 정의를 지지하고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결하여 의도의 간섭을 막고 국가의 자주권과 독자성, 안정을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예브 에베카트가 2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여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팔레스타인독립국가들을 인정하기를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는 유대복고주의자들이 평화

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수단은 정의를 지지하고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울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결하여 의도의 간섭을 막고 국가의 자주권과 독자성, 안정을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있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팔레스타인독립국가를 인정하여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용납될수 없는 살인파 폭압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새해첫두루마 《반테로》의 간판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에 미쳐들려있고있다.

1일 미군은 북부파키스탄 지역 상공에 여러차례 무인기를 띄워미일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써 18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 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자 연 교 해

필리핀의 알베이주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큰피해를 입었다. 콘올로 2명이 사망하고 4 000여명이 소개되었

이룩하는데는 판심이 없고 정찰선건설에만 몰두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폭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있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팔레스타인독립국가를 인정하여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들에 대한 폭압만행에 계속 매여들려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2일 오르만강성안지역의 나볼루스시에서 이스라엘군이 손 총에 맞아 1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앞서 1일 이스라엘군은 라말라호지에서 《안전장벽》건설을 반대하여 항의투쟁을 벌리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어 1명의 녀성을 살해하였다.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새해과업에 대해 언급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 2011년을 맞아 신년사에서 새해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에집트대통령 무함마드 후스니 무바라크는 새해에 커다란 희망과 신심, 락만을 가지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민중투구대통령 요제프 까빌라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을 정부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단 평 도 적 이 매 를 드 는 격

강도가 강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아대고있다. 지난해 5월 팔레스타니아의 가자지대를 향하여 공해상에서 항행하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속한 튀르키예선박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기습공격으로 9명의 튀르키예인들이 사망하였다. 튀르키예는 국제법을 만류하게 위반한 이스라엘군의 불법무도한 표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공격을 《정당방위》라고 우겨대면서 사죄를 오히려 회피하여온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히려 제편에서 그 누구의 《사죄》에 대해 읊운하고있다.

조 성 철

일본이 남부쿠릴열도를 둘러싼 로씨야와의 영토분쟁에서 골탕을 먹고있다. 지난해 11월 로씨야의 메드베제브대통령이 진행한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방문은 지금까지 4개 분쟁섬에 대한 영유권을 줄곧 주장해온 일본에 있어 로씨야로부터 뺨을 얻어맞은것과 같은 《매우 불쾌한 사건》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로씨야에 1부수상 이리리 슈발로프가 남부쿠릴열도의 쿠나쉬리섬과 이부루쓰섬에 대한 방문을 진행함으로써 또다시 일본을 골탕먹였다. 슈발로프는 지난해 12월 13일에 방문한 남부쿠릴열도섬들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기의 로씨야 입의 메드베제브대통령의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이를 통해 남부쿠릴열도는 분쟁영토가 아니며 로씨야인이란 누구든지 사중없이 입의 시대에 갈수 있는 로씨야땅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남부쿠릴열도를 자국영토로 여기며 일본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려는 로씨야의 립장은 더욱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교육과 보건사업을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하였고 가봉대통령 알리 붕고 응디바는 하부구조건설과 발전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과 함께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적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우타 무제베니는 에네르기, 원유공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업시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의 단합을 실현하여 번영을 이룩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가나대통령 존 에번스 아라 밀즈는 강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건설하는것을 주요과업으로 내세우고 국제 인민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메히코대통령 페레라 칼데론

이도호씨는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여 실업률을 줄이려 범세계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벨라루스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부가 주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부채지는 도전을 제거하고 예산된 목표를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을 집중하며 보건과 교육, 문화 등 분야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천명하였다.

블스카대통령 브로니스와프 코포투스키는 사회적단합을 이룩하고 범죄행위를 근절시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공격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망발하면서 튀르키예가 《테로》를 지원하였기때문에 이스라엘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흑백을 전도하는데 이골이 난자들만이 할수 있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인도주의의를자를 심고가는 인간화운동에 남강도적으로 뛰어들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지막친한 인간백성, 테로, 장폐무리가 감히 그 누구의 《사죄》를 요구할 자격과 체면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그 무슨 《사죄》를 요구하는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강도적계행을 그만두고 자기의 회행을 시인하여야 하며 마땅히 력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재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고있는것은 로씨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후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로인전쟁시기 로씨야에 일본이 잃었던 남부쿠릴열도에 남부쿠릴열도를 쓰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었다. 그리고 1956년 스코트와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반합정에서 이 합의가 법적으로 고착되었다. 당시 스코트정부는 쓰일정확적약 체결과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 군사기지철거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남부쿠릴열도의 2개 섬을 일본에 넘겨줄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쓰일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스코트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이에 따라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있다.

일본은 로씨야가 남부쿠릴열도를 《비밀적으로 강점》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씨야로부터 어떻게 하라 명령권을 빼앗아내려고 하고있지만 골탕만 먹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일본이 《경제적지원》을 미끼로 로씨야를 구슬러 남부쿠릴열도문제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던 계책도 이미징에 실패하였다. 일본은 남부쿠릴열도를 둘러싼 로씨야와의 영토분쟁이 일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 울며타는꼴을 보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수